

사랑의 향기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농어촌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그 깊은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깊고도 아린 상처기를 치료할 약은 사랑이 최고라 생각됩니다. 사랑은 아무리 주고 줘도 바닥 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욱더 샘솟아 나게 되지요.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어떤 것도 없다고 봅니다. 참된 사랑은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이고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못 잊는 법이지요.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군림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더욱 마음 쏟으며 정의를 진리로 알고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리더십을 쏟아 냅시다.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농작물에 막대한 손실이 닥쳤습니다. 농어민들은 추스르기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 매일 힘겨운 재기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골프 대회를 열고 주색잡기에 돌아난다면 재기의 몸부림에 기진맥진한 그들의 영혼마저 파괴시키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미약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 모두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부귀와 영화를 맘껏 누리려도 죽을 때는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한 푼도 갖고 갈수 없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일진대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는 것일까요? 소유한 만큼 지니고 갈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잠시 나를 내려놓고 옆을 돌아다 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지친자들이 있는지 돌아다 봅시다. 사랑의 향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서산지역 출신 시복시성 대상자의 믿음과 삶

김 진 소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차 례

1. 순교자의 땅 내포
2. 순교자의 믿음 삶이
3. 해미의 시복시성 대상자들
4. 끝나지 않은 순교

2) 이보현(李步玄, 프란치스코, 1773~1800)

이보현은 충청도 덕산 황모실(현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부유한 양인(良人) 가문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고집이 여간 아니었는데 부친을 여윈 후로는 그의 난폭한 성질을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이보현이 24세 때 덕산 용머리(현재 예산군 삽교면 용동리)에 사는 황심(黃沁, 토마스)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는 전연 딴 사람이 되어 그의 성실하고 훌륭한 행동에 주변사람들이 감탄하였다. 황심은 이존창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1796년·1797년·1799년에 걸쳐 선교사 영입운동에 밀사로 파견되어 복경을 내왕한 인물이다.

이보현은 결혼할 뜻이 전혀 없었지만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혼하였지만 고행과 금욕을 실천하며 수행생활(修行生活)을 하기 위해 황심과 같이 충청도 연산 땅 산골로 이사하였다. 1795년 6월 을묘박해가 일어나자 주문모 신부는 연산 이보현의 집에서 수개월 숨어지냈다. 이보현은 신앙지식이 깊어질 수록 수도자처럼 수행생활을 열심히 했다.

1797년 정사박해가 시작되자 두려워 하기는 커녕 가족과 신도들을 격려하며 신앙을 북돋아 주는데 더욱 열중하였다. 이보현은 날마다 예수의 수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신앙을 증거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믿음을 데워 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박해가 닥칠 것을 예감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리며 ‘이것이 마지막 잔치’라며 죽음을 준비하였다. 아니나다를까, 이를 후 포졸들이 들이 닥쳐 체포되어 연산 관아로 끌려갔다.

연산 관장은 배교하고 신도들과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도록 으름장을 놓았지만, 배교는 고사하고 만물의 대군대부(大君大父)이신 천주께 관한 책을 감히 관장에게 내놓을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보현은 충청 감사의 명에 따라 그의 고향인 덕산을 관할하는 해미진영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배교를 강요당하며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기원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천주님께 있는데 어찌 천주를 공경하지 않겠느냐며 관장을 혼계하였다.

해미관장은 충청감사에게 이보현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죽이라고 했다. 이보현은 사형판결문을 읽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판결문에서 서명하였다. 그 후 장터로 끌려 나가 혹독하게 매를 맞았지만 숨이 끊기지 않자 망나니가 몸동이로 불두덩을 짓이겨 죽였다. 때는 1800년 1월 9일(음력 1799년 12월 15일) 그의 나이 27세였다.

3) 김진후(金震厚, 비오, 1739~1814)

김진후는 충청도 면천 솔피(현재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김진후는 성(聖)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증조부이며,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김종한(안드레아)의 아버지이며, 성(聖) 김제준(이냐시오)의 조부이다.

김진후의 가문에서 맨 처음 천주교에 입교한 것은 큰 아들 종현(淙鉉)이다. 김종현은 이존창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입교하여 형제들을 입교시켰지만 아버지 진후는 출세에 여념이 없어 아들의 권유를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아들들의 끊임없는 권유받고는 미관말직이나마 버리고 입교하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김진후는 179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풀려나고, 그 후에도 어쩐 까닭인지 몇 차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1801년 신유박해 때는 60이 넘는 고령이어서 였던가, 배교하고 유배형을 받았지만 얼마 후 풀려났다. 그 후 1805년 다시 체포되어 해미로 압송되었다. 김진후가 신자다운 행동을 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그는 관장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박해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사형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해야 했다. 김진후는 옥중에서 신앙이 불붙어 드러내 놓고 기도생활에 열중 했다. 그러기를 10년 세월을 옥에서 지내는 동안 노구를 지탱하지 못하고 1814년 12월 1일(음력 10월 20일)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때 나이 75세였다.

4. 끝나지 않은 순교

앞서 말한 순교자들은 한국천주교가 겪은 초기 박해의 순교자들이었다. 신앙 선조들의 믿음살이는 후대의 모든 신도들에게 스승이었다. 그리하여 후대의 순교자들은 앞서 가신 선조들의 표양을 역사 안에 지속시키며 살려냈다. 조상들도 해냈듯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조들의 교훈과 표양은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후손들에게 마중물처럼 희망의 생수를 퍼 올렸다. 어찌 시복시성이 천주교인들만의 잔치겠는가. 성인들의 표양은 현재도 미래에도 모든 사람에게 삶의 자양분이다.

서산문화에서 종교문화를 빼면 허전하다. 서산인은 오랜 역사 동안 미륵신앙을 보며 살과 뼈가 자랐다. 서산인은 꿈을 먹고 살았다. 《내포문화연구》의 오윤희는 미륵불(彌勒佛)은 희망을 꿈꾸는 미래불(未來佛)이라고 한다. 순교자의 믿음살이 역시 희망을 꿈꾸며 살던 신앙이었다. 서산문화는 종교상생이 가능하다. 한국 천주교가 기다리고 있는 시복시성은 서산인의 축제가기도하다.



서산 예천동 유적은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이다. 금번 발굴조사 이전 까지만 해도 예천동유적의 존재는 각종 문화재 현황조사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았었다.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는



학예연구사
이강열

서산지역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인 예천동 유적에 대한 발견 경위와 유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천동 유적은 우선 서산시내를 우회하여 태안으로 연결하는 동서간선도로 부지 내 유적으로 최초 문화재 지표조사가 2007년 6월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확인된 21,000㎡에 대한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2009년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하였는데, 백제시대(百濟時代) 분구묘(墳丘墓)와 관련된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 6기 및 주구시설(周溝施設) 15기,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 주거지(住居址) 2기, 시대미상 토광묘(土壙墓) 2기, 미상유구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석촉편 및 백제시대 흑색 마연토기, 이중구연호, 소형호, 철도, 철모, 철부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밖에 조선시대 자기·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16,400㎡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 조사는 2010년 3월8일~10월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결과 총 16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초기철기시대 옹관묘 1기 · 토광묘 1기, 백제시대 분구묘 94기 · 옹관묘 1기, 고려시대 토광묘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1기 ·



주공군, 시대미상의 주거지 3기 · 탄요 2기 · 수혈유구 5기, 토광묘 7기, 구상유구 9기, 성격을 알 수 없는 미상유구 19기, 근현대 교통호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역삼동유형 주거지로 주거지 내부에서 구순각목공열문토기, 석도, 지석, 석검편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해미면 기지리유적과 음암면 부장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어 전기취락 분포와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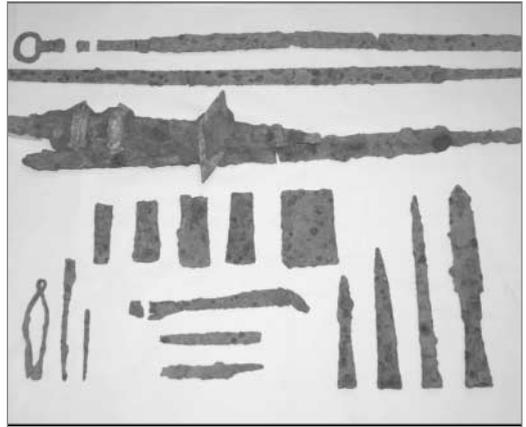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이다. 그 동안 청동기시대와 백제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금번 조사를 통해서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 백제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옹관묘는 2개의 토기를 맞대어 조성된 합구식 옹관묘이며, 사용된 토기는 점토대토기로 우각형파수가 달려 있다. 토광묘에서도 출토된 토기 또한 옹관묘와의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백제시대 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분구묘는 총 94기가 확인되었다. 분구묘간의 중복관계를 통해 유적의 선후관계와 조성관계를 파악하기 좋은 자료이다.

분구묘는 매장주체부가 있고 주위로 주구를 돌린 형태이다. 매장주체부에서는 목관을 사용하였으며, 주구는 단면 U자형 형태를 이루고, 주구에 토기를 매납하기도 하였다. 출토유물은 원저단 경호(圓低短頸壺), 이중구연호(二重口緣壺), 양이부호(兩耳附壺), 유견호(有肩壺) 등의 토기류와 청동제 칼집이 있는 철제단검은 백제시대 유적에서도 출토예가 없는 중요유물이며, 이 밖에도



21호 분구묘 전경



분구묘 출토 철기류 일괄

환두대도, 길이가 40cm에 이르는 대형의 철제철정, 철모, 철제집게등이 확인되었다. 구슬류는 시신을 매납하면서 의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무덤전체에 뿌려진 상태로 확인되어 흥미롭다.

예천동유적은 이처럼 서산지역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선사, 삼국시대가 주를 이루고, 선사와 역사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주목된다. 특히 서산지역은 최근 음암면 부장리 유적, 해미면 기지리유적에서 대단위 분구묘가 확인되면서 서산지역의 분구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유적보다 빠른 시기의 예천동유적에서 분구묘가 확인되면서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분구묘 자료는 백제시대 고분연구와 지방통치와 관련하여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분구묘의 중심 지역으로서 서산지역의 중요성을 학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헌

1544(중종 39)~1592(선조 25)

호는 중봉, 본관은 백천
1567년(명종 22) 병과로 급제,
1572년(선조 5)교서관 정자로,
왕이 절에 향을 하사하는 것을 반대
하다 삭직, 곧 저작에 등용되고,
그 후 통진 현감이 되어 죄인을
엄중히 다스려, 남형한다는 탄핵을
받고 부평에 유배되었다. 1581년
공조좌랑으로 기용, 1582년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보은 현감으로 나갔다.

조선의 문신, 의병장

1586년 학제 개편으로 전국에
제독관을 둘때 공주 제독관에
임명되어, 당시 정권을 잡은 동인이 이이, 성혼 등을 추좌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고 고향에 돌아간 사실로 인해 길주에
유배, 이해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용서받았다.

1591년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의 처단을 상소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 국방력의 강화를 주장했으나 용납되지 않았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1천 7백여명을 규합, 이해 영규 등 승병과 합세하여 청주를 수복하였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고바야카와의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으로 향했으나, 전공을 시기하는 관군의 방해로 대부분의 의병이 해산당하고, 불과 7백명의 의병으로 금산 전투에 참가, 끝까지 용전하다 7백 의병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중봉 조헌 사당)

이이의 문인 중 가장 뛰어난 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영의정에 추증, 옥천의 표충사 등에 제향, 시호는 문렬

[文獻] 宣祖實錄 姜萬吉：趙憲 等

■ 영정개요 ■

- 표준영정지정년도 : 1977년
- 제작작가 : 운보 김기창
- 영정크기 : 84cm X 121cm
- 소장지및소장인 : 칠백의 총관리소



중구, 상달교사

■ 중구의 어원

음력 9월 9일의 중구는 9월 중의 유일한 속절(俗節)이며, 중양(重陽) 또는 중광(重光)이라고도 한다. 중양·중광은 양(陽)이 겹친다는 뜻이며, 중구는 '9[九]' 수가 겹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奇數]를 '양(陽)의 수'라 하고, 짝수[偶數]를 '음(陰)의 수'라 하여 '양의 수'를 길수(吉數)로 여겼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절일(節日)로서 설(1월 1일)·삼짇날(3월 3일)·단오(5월 5일)·칠석(7월 7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절은 '양수(陽數)'를 길수(吉數)로 여기는 기수민속(奇數民俗)들이다. 이러한 기수민속은 양의 수가 중첩된다는 의미에서 다 중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중양이라고 하면 중구를 가리킨다.

■ 중구의 유래

중구를 비롯한 기수민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대(漢代) 이래로 중구절에 상국(賞菊)·등고(登高)·시주(詩酒)의 풍속이 있었고, 당송대(唐宋代)에도 관리들의 휴가일로서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중구의 풍속이 전해 오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안압지의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月上樓)에서 군신이 중구에 연례적으로 모여서 시가를 즐긴 듯 하며, 고려시대에는 중구의 향연이 국가적으로 정례화 하였다. 조선 세종 때에는 삼짇날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추석에 행하던 기로연을 중구로 옮기고 유생들에게 과거를 실시했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9월 조에 의하면 "서울의 풍속을 보면 중구날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가 먹고 마시며 단풍놀이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보아 중구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풍속으로 보인다.

■ 중구의 풍속

조선 후기의 문인 유만공(柳晩恭)이 지은 《세시풍요(歲時風謠)》를 보면 중구에 대한 시(詩)가 있는데, 이 시는 중구의 풍속에 대한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금꽃을 처음 거두어다가 등근 떡을 구워 놓고 상락주(桑落酒)를 새로 걸러 자그마치 술지게미를 짜냈다. 붉은 잎 가을 동산에 아담한 모임을 이루었으니, 이 풍류가 억지로 등고(登高)놀이하는 것보다는 낫다. <중양절(重陽節)의 술을 상락(桑落)이라고 한다>"



중구에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풍속이 전하여 온다. 예컨대 성주단지에 햇곡식을 갈아주며 제물을 차려 성주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기일(忌日)을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연고자 없이 떠돌다 죽었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또 추석 무렵에 햇곡식이 나지 않아 차례를 지내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날에 차례를 지내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생산되는 햇곡식을 조상에게 바치고자 하는 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구의 시절음식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월 조에 의하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빚어 먹는데, 그 방법은 삼월 삼진날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으며, 이를 화전(花煎)이라 한다. 지금의 국화떡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 등을 잘게 썰어서 꿀물에 타면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중구의 시절음식으로 국화전과 화채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중구에는 각 가정에서 국화전을 해먹거나 국화주를

빚고, 술과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산이나 계곡에 가서 단풍놀이를 하기도 한다. 부녀자·소년·소녀들은 제각기 무리 지어 하루를 즐기고, 문인들은 시를 짓고 풍월을 읊어 주흥을 즐긴다. 또 이때쯤이면 약초가 한고비를 이루는데, 구절 초는 이때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산이나 들에 나가 뜯기도 한다.

■ 상달고사의 어원

상달고사란 음력 10월에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가신(家神)들에게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 고사라는 말은 세시풍속상에서 안택(安宅)이라는 말과 혼동되어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양자가 가정단위의 제사이며, 아울러 성주·조상·터주·조왕·삼신 등 모시는 대상신들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사는 주로 상달고사를 말하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강하고, 안택은 주로 정월에 행해지며 연초의 액막이 및 행운기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사 혹은 안택이라는 이름은 중부를 포함한 중부이북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영호남 지방에서는 도신(禱神) 또는 도신제라 부른다. 최남선은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 '고시례·고사·굿'을 같은 어원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그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례를 '고시례'라 하고, '고사'는 굿의 규모는 아닌 중간 정도의 의례를 말하며, 장구를 울리고 무악(巫樂)을 갖추어 춤을 추는 등 규모가 가장 큰 의례를 '굿'이라고 하였다.

■ 상달고사의 유래

상달고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하는 바가 없으며 다만 옛기록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상달은 10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일 년내 농사가 마무리되고 신곡신과(新穀新果)를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 이다. 따라서 10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서 열두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달에는 예로부터 무수한 종교적 행사가 전승되어 왔다. 고대에는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부여의 영고(迎鼓) 등 추수감사의 의미를 내포하는 제천의식이 있었다. 고려 때에는 팔관회(八關會)가 그 맥을 이은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민가에서 고사 혹은 안택으로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 상달고사의 유래는 고대 국가행사인 제천의식에서 가정의례로 변모하여 전승되었으리라 짐작된다.

■ 상달고사의 풍속

고사를 지낼 때는 좋은 날을 가려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서 집안으로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를 지킨다. 제물로는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는데, 떡은 떡의 쉼을 만든 시루떡과 쉼이 없는 백설기를 만든다. 백설기는 산신(産神)인 안방의 제석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제물은 안방을 비롯하여 사랑방, 머슴방, 나락가리, 쌀뒤지, 장광 등 집안의 곳곳에 조금씩 차려 놓는다.

의례는 대개 주부가 담당하는데, 제물을 차린 후 배례를 하고 손을 모아서 빌거나 축원을 하며 기원한다. 기원하는 대상신은 집안의 풍요와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는 가신(家神)들이다. 가신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중요한 가신들로서 터주신·성주신·제석신·조왕신 등에게는 배례와 축원을 하고, 이 밖에 칠성신·측신·마당신·문신 등에는 제물만 놓는다. 가신이 아닌 마을수호신에게도 제물을 차려 배례와 축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제물만 차려 놓는다. 이 때는 떡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상례이다.

고사를 조금 크게 행하고자 할 때는 무당이나 중을 청하여 행한다. 무당을 청하여 고사를 행할 경우는 제금만을 올리면서 축원을 하여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중을 청하여 고사를 행할 경우는 떡을 하지 않고 간단히 고사반(告祀盤)을 만들어 놓고 중이 염불을 읽는다. 고사반은 그릇에 쌀을 수북이 담아놓고, 실타래를 감은 숟가락을 세워 꽂아 놓은 것을 말한다. 실타래는 수명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의 장수·건강을 비는 뜻이 강하다. 이때 부르는 염불을 또한 고사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고사반으로는 '회심곡'이 있다. 마당신·문신 등에는 제물만 놓는다. 가신이 아닌 마을수호신에게도 제물을 차려 배례와 축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제물만 차려 놓는다. 이 때는 떡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상례이다.



상달성주고사



상달터줏가리



상달터줏가리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청전 이상범의 暮秋

한사람의 생애도 많은 변화와 다양한 직업을 거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가지 일과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내온 인생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이와 비교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오가며 다양한 화법과 소재도 다양하게 변하는 작가가 있는가하면 한 가지 재료와 양식, 소재를 죽는 날까지 꾸준히 추구하는 작가도 있다.

청전 이상범은 후자에 속하는 작가로 한국화의 세계에 입문하여 그의 나이 75세 생을 마칠 때까지 꾸준히 수묵산수의 세계를 추구해온 작가이다. 1987년 충남공주의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아버지를 사별하고 9살 때 서울로 이주하여 혹독한 가난을 겪으며 그림공부를 한 작가는 신문사에서 삽화가로 근무했고 꾸준히 선전에 발표되면서 심사에도 참여하였다. 후에 미술대학에 후학을 지도 하기도하였으나 75세 세상을 등질 때까지 개인전을 주선하겠다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만한 주제도 못되고 또 그럴만한 준비도 없노라고 간곡히 사양하여 생전에 한 번도 개인전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개인전은 유작전으로 미완성 그림들과 함께 전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외로운 작가의 길은 그렇게 겸허하고 조출하게 즐기며 말없이 걸어간 분이었고, 정말 서민적인 생활정서를 기르고 닦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간 분이였다.

어떤 사람은 청전선생의 그림이 너무나 천편일률로 변화가 없다는 말들을 하지만 바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분의 철학이 깊이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야한다.

황량한 산등성이나 별판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그분의 그림속세계는 그분 자신이나 그분이 태어난 우리 산하의 소박한 속성이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된 것이었으며 그림 속의 그 외로운 인물은 바로 그 자신의 影像(영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자연 특히 쓸쓸한 가을 풍경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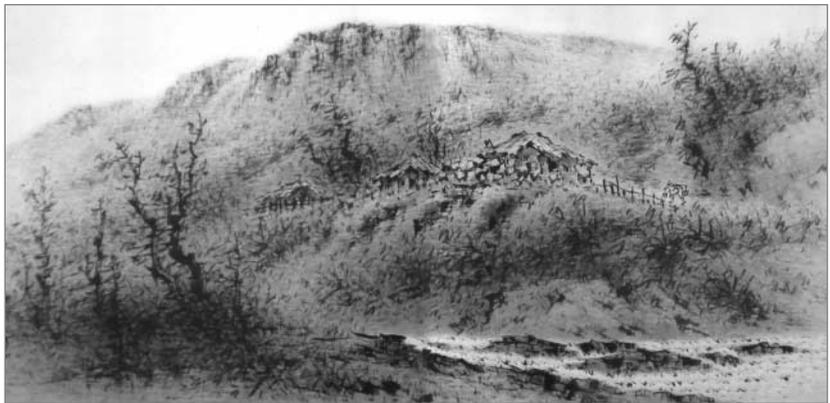
함에 있어 것처럼 덩덤하고 고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작품 중 暮秋(모추:저무는 가을)는 근경에 몇 그루의 나무와 냇가를 배치하고 중경에 山家(산가)와 村夫(촌부)를 그리고 멀리 산을 배치한 청전그림의 전형적인 구성의 그림이다.

근경의 나무 몇 그루는 거센 비바람을 맞아 힘들고 고달프게 서있고, 남은 몇 개의 나뭇잎은 마지막 가는 가을을 붙잡고 먹빛산하에 조금은 사치스럽게 떨리는 계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오른쪽 잔물결의 자그마한 냇물은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는 듯 차갑고 예리하게 전율하고 있다. 가운데 초막은 강직해보이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 소박하고, 그 언덕을 오르는 촌부는 힘겨워 보이거나 건강하다.

멀리원경은 거친 듯이 바위산이고 이미 황량한 겨울 산처럼 느껴진다. 이 그림은 황량하고 고독한 우리산하의 정경 속에 저리고 아픈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민족의 소박하고도 담대한 삶의 진지함을 너무도



暮秋(모추) - 126cm x 60cm

편하게 펼쳐 보인다. 우리국토 그 어디에건 놓여 있음직한 평범하면서도 스산스러운 언덕길이나 소리 치며 길게 흐르는 여울을 그리도 좋아했던 청전의 그림은 아침이 깃든 눈요기의 그림이 아니라 마음속 밑바탕을 건드려주는 참마음의 그림이다.



글쓴이 소개

조 행 섭

-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강사
- 한국화 화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서얼이었다. 원칙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정조 3년(1779년)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으로 특채되었다. 이후 15년간 낮은 직책을 전전했지만, 이덕무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두터웠다. 정조는 이덕무가 사망한 2년 후, 이덕무의 아들 이광규를 검서관으로 특채하고 특별히 국고(國庫)에서 내탕전(內帑錢) 500냥을 내어 이덕무의 유고집을 간행해주도록 지시했다.

이덕무가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보여준 방대하면서도 근면한 독서인 사대부로서의 선비다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대부 선비의 삶으로서 이덕무는 동시대의 어떠한 인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이덕무는 독서를 베이스로 하는 지식 교양 계급으로서의 사대부, 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진짜 선비였다.

목멱산이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데, 어눌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였으며, 성격이 졸렬하고 게을러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고, 바둑이나 장기는 더욱 알지 못하였다. 남들이 욕을 하여도 변명하지 않고, 칭찬을 하여도 자궁하지 않고 오직 책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추위나 더위나 배고픔을 전연 알지 못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20세가 되기까지 일찍이 한 번도 고서(古書)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그의 방은 매우 작았다. 그러나 동창·남창·서창이 있어 동쪽 서쪽으로 해를 따라 밝은 데에서 책을 보았다. 보지 못한 책을 보면 문득 기뻐서 웃으니, 집안 사람들은 그의 웃음을 보면 기이한 책[奇書]을 구한 것을 알았다.

자미(두보)의 오언율시를 더욱 좋아하여 읽는 사람처럼 응얼거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자미(두보)의 오언율시를 더욱 좋아하여 읽는 사람처럼 응얼거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심오한 뜻을 깨우치면 매우 기뻐서 일어나 주선(周旋:이리저리걸어다님)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갈가미귀가 짚는 듯하였다. 혹은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크게 뜨고 멀거니 보기도 하고, 혹은 꿈꾸는 사람처럼 혼자서 증얼거리기도 하니, 사람들이 지목하여 간서치(看書痴:책만보는바보)라 하여도 웃으며 받아들였다. 그의 전기를 써 주는 사람이 없기에 붓을 들어 그 일을 써서 '간서치전'을 만들고 그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간서치전』, 『전서』, 290)

이덕무는 자타가 공인하는 책벌레(간서치)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동창·남창·서창 등 해를 따라 밝은 곳에서 책을 읽었다. 그가 진정으로 기뻐서 웃음을 터뜨릴 때는 일찍이 보지 못한 책을 보게 될 때였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웃음만 보고도 그가 귀한 책을 얻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요컨대 '책'은 이덕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덕무를 '책만 보는 바보'라 놀려 불렀지만, 이덕무는 자신이 독서벽에 붙들린 사람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덕무-청장관전서)

한 마디로 이덕무는 '미친 듯이' 독서에 몰입했다. 이덕무가 평생 읽은 책은 수만권이 넘는다. 시간을 쪼개 초(抄)한 책만도 수백권이었다. 이덕무는 선비·군자로서 한가로이 할 일도 없이 지내면서 독서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잠을 자거나 노름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여색에 힘쓰게 될 뿐이라고 했다. 이덕무는 대부분의 책을 빌려 읽었다. 책에 관한 그의 탐심(貪心)은 과연 대단한 것이어서, 누군가의 집에 귀한 책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그것을 졸라 빌려 보곤 하였다.

이덕무는 책을 빌리고, 읽고, 정리하는 일로 세상을 소일한 게 아니라, 치열하게 읽고, 베끼고, 느끼는 것에 자신의 존재를 걸었다. 세상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무용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덕무의 실존이 책읽는 선비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의 실존이 책을 향해 던졌던 엄혹한 승부의 과정을 그렇듯 표면적이고 단선적인 몇 개의 인상들로 거칠게 도려내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덕무에게는 책이 우주와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소통하는 우주를 거대한 담론으로 구성하는 대신 개별적인 삶에 대한 통찰들로 채워 넣었다. 요컨대 이덕무의 독서는 성리학적 질서를 개인적인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체인

하려 했던 한 유학자의 끈질긴 싸움이었다. 선비에게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더욱이 그 싸움이 현실적 출세가 원천 봉쇄된 서얼 출신 선비가 선택한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울림은 더욱 크고 깊다. 우리는 과연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걸고 이보다 더 강렬한 싸움의 방식을 상상할 수 있을까.

가난해서 반궤미의 돈도 저축하지 못한 주제에 천하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은택을 베풀려 하고, 노둔해서 한 부의 책도 통독하지 못한 주제에 만고의 경사(經史)와 총패(叢穢)를 다 보려 하니, 이는 오활한 자가 아니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 이덕무야! 아, 이덕무야! 바로 네가 그렇다. 「선골당농소」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만이 자기 시대에 대한 지식인의 실존적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곤궁한 삶과 불합리한 현실적 제도 등을 불평하고 이것들에 분노하는 삶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평생을 가난 속에 살면서도 명예와 권세를 구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았던 이덕무의 삶은 또한 그것대로 또 다른 차원의 실존적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덕무는 거대담론이나 현실 정치와는 무관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남겼다. 세파에 영합하지 않는 그의 문장은 18세기 후반 조선이 맞이한 새로운 감각의 출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덕무는 정조의 문제반정(文體反正)과 충돌한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순정(純正)함이 보여준 불온함의 역설!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백제의 옛길 강맹이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정 명 재

고풍저수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선질바위, 군장동을지나 강맹이 길목에 이른다, 강맹이는 용현2리의 옛 이름으로 친근감을 준다. 여기에서 용현계곡을 따라 오르면 강맹이미륵불, 쥐바위, 인바위, 서산 마애삼존불상을 차례로 만나고 보원사지를 지면 군왕골(君王谷)이 된다, 이 길을 옛날 백제사람들이 중국을 오고 갔던 백제의 옛길이라고 한다. 강맹이미륵불은 군장동의 강맹이 길목에 있었는데 고풍저수지의 수몰을 피해 지금은 강맹이에 옮겨져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가야산 군왕골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맑은 물은 용현계곡을 거쳐 군장동에서 다시 모여 용장천을 이루면서 가뭄을 모르고 사시사철 흘렀다고 한다.

지금은 고풍저수지의 수몰지역이 된 저수지 안에는 옛날 이곳에 많은 군사를 감춰뒀다는 군장동(軍藏洞)과, 장수가 칼을 옆에 놓고 앉아있다는 장군대좌(將軍臺座)가있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용현계곡의 군왕골(君王谷)은 상왕(象王)이 군사를 이끌고 웅거하며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이 군왕골의 정상은 문다래미(石門峯)라 부른다. 문다래미(石門峯)는 해발 653m로 서해안 곳곳이 한눈에 보이고 대기 오염이 없던 옛날에는 인천앞 바다까지 보였다고 하니 바다건너 쳐들어오는 당나라 군사를 막아 서해안을 방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니었을까.



군장동과 군왕골은 높고 깊은 산속에 크고 작은 협곡이 감추어져있어 군사를 숨겨놓고 적을 공격하고 방어하기에 용이한 곳이다. 일찍이 백제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하며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부여를 탈환하기 위해 백제의 부흥군이 이곳에서 나당 연합군과 싸움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설속에 군사들이 주둔해있었고 장수(將帥)와 상왕(象王)이 있었으니 어디엔가 군마(軍馬)가 있었을 법하다. 이들을 위하여 준비해둔 용마(龍馬)가 바로 고풍저수지 제방 아래 남쪽에 있는 신질바위라고 한다.



신질바위는 말목덜미의 갈기처럼 길게 수직으로 늘어선 바위가 쉼 질이나 된다는 바위산을 말한다. 이 용마는 먼 길을 달려와 앞 다리를 크게 벌린 채 고개를 숙이고 급히 이 냇물을 마시는 모습을 하고 있다. 멀리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이 근처에는 말의 등과 같이 생겼다하여 말등바위, 보(洑)주변에 말무덤이 있었다하여 말무덤보 등 말과 관련된 지명들이 있다.

이 산에는 명당이 있어 이곳을 찾아 묘를 쓰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전해온다. 이 명당의 산세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모양과 같다하여 갈마음수(渴馬飲水)형이라 했다. 이 신질바위 아래를 흐르는 냇물은 용마(龍馬)가 마실 수 있도록 군왕골과 군장동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당진과 이웃해 있는 이곳의 영세농가에서는 매년 모내기를 서둘러 마치고 남은 일손은 합덕 평야로 모내기 품팔이를 떠났다. 품팔이에서 돌아온 농부들의 입을 통하여 합덕지방의 너른 들판과 농가의 풍요로운 생활 이야기며, 그곳에서 전해오는 부자(富者) 유씨(俞氏)의 이야기가 이곳에도 전해졌다.

전설에 의하면 합덕에 살던 유씨(俞氏)성을 가진 이가 신질바위의 명당에 묘를 쓰고 큰 부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묘를 쓴 후 가세가 크게 흥하던 중에 신질바위 아래냇물이 마르자 유부자택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재산이 불에 탔지만 이 냇물이 다시 흐르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한다. 그가 유한팔(俞漢八)이라는 분인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철주(詰柱)가 범천면(지금의 우강면) 창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효심을 이어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남달리 지극했다. 철주(詰柱)가 성장하면서 아버지께서 깊은 병환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계시자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아버지의 치병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효를 다하여 모시며 위급해지자 단지혈까지 드렸지만 보람없이 돌아가셨다.

소상 대상이 지나도록 초분에 모시고 뒷자리를 찾아 산중을 헤매고 있던 추운 겨울, 눈 덮인 산속의 오두막집의 냉방에서 병환으로 신음하는 노인을 발견 했다. 옷을 벗어 덮어드리고, 나무를 해다 불을 때고 밥을 얻어 미음을 쑤어드리며 정성껏 간병을 해 건강이 회복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자 노인은 철주(詰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렇게 다니는 이유를 물었다. 철주(詰柱)는 아버지의 뒷자리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자, 그럼 “내가 뒷자리를 하나 잡아 줄 테니 써보겠나” 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앞에는 내가 흐르고 뒤에는 벼랑이 선질이나 되는 낭떠러지 선질바위 위에 뒷자리를 정해주었다. 그리고 이곳에 묘를 쓰면 삼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네 라는 말을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버지의 묘를 쓴 후 그 노인의 말대로 그 아들 백환(百煥)은 전의 현감을 지냈고 그의 손자 치흥(致興)은 비서원에 이르렀으며, 치영(致永)은 면천군수를, 치직(致稷)은 덕산 군수를 지냈으며, 증손자 진태(鎭泰)는 도지부통정비서원 승지에 이르는 등 번창한 3대를 거쳤고 수십만 평에 이르는 넓은 농토를 장만하여 큰 부자가 되어 우강면 창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당진지방에 전해온다고 한다. 자기 부모를 잘 모시고 남의 부모에게도 소홀하지 않았으니 하늘과 땅에서 주는 복(福)일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전설을 만들어 교훈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친근하게 한다. 사람이 자연에 순응하며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면 자연은 복(福)을 주었고, 거역하고 이기적일 때에는 화(禍)가 미쳤다.

전설 속에 감추었던 백제의 옛길이 이제 아라메길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아라메길의 진수(眞髓)는 강당이에서 찾을 수 있다. 쥐바위, 인바위, 군왕골,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는 백제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 약속의 장소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이 오가며 나눈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우리에게 전하여온다.



용현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산과 물과 바다를 사랑하며 마음을 비우고 아라메길을 걸으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줄 것이다.

자료협조 : 운산면 용장리2리 朱用鎬 (풍수지리연구)



행복한 자수



김 현 주
서산문화원 자수 강사

인간이 만든 가장 단순하면
서도 오래된 물건 두 가지가
있다.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
기도 하는 칼과 바늘이 그것
이다.

바늘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중 자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한다. 자수란 옷감
이나 형겅 따위에 여러 가지의 색실로 그림, 글자, 무늬
따위를 수놓는 일, 또는 그 수(繡)를 의미한다. 물감이 아닌
실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자수는 재질의 특성상 직물의 발달과 같이 하였으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상과 미의식이 투영된 문화적
유산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소망사항인 부귀
(富貴)를 누리며 다복(多福)하게 오래살기(長壽)를 바라는
마을을 문양에 담아 착용하던 복식이나 주변의 생활용품에
새겨 두었던 것이다.

자수의 주재료인 실은 물론 자수가 놓여진 직물도 손상
되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오래된 자수 유물을 찾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자수품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은 고려
시대 14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563호인

사계분경도(四季盆景圖)로 이 4첩의 각 장면은 춘하추동으로 구분되어진 병풍자수 작품이다. 이 외에는 조선후기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조선후기 이전의 자수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東夷傳)에 부여에서 “나라 밖을 나갈 때에는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 이전부터 복식에 문양을 수놓아 장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수는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에는 수놓인 비단과 말안장의 사용을 금했다는 기록을 보면 자수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제작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수예품이 일부 특권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층에까지 확대 되었다.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자수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의, 식, 주의 용도로 구분하여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과 관련되어지는 전통자수는 복식, 자수 장신구로 구분되고 이것은 다시 한복, 활옷, 흥배, 후수, 수노리개, 수주머니, 수안경집, 수꽃신, 수쌌지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둘째, 음식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는 밥상보, 덮개보, 식지보를 포함한 음식을 덮는 용도의 조각보와 수저주머니, 수약주머니 등 자수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주거용의 자수와 관련된 것으로 침구에 수를 놓는 자수 종류와 주택의 방문에 늘어 뜨리는 장식과 바람막이 용도의 침장, 가마문 역할을 하는 교렴이 있고 솜을 천 사이에 넣어 보온성을 높인 누비이불, 옷가지와 자투리 천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누비 보자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전통자수의 기법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비단에 수를 놓아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자수기법으로는 점수, 이음수, 평수, 가름수, 삼각수, 평사 누름수, 솔잎수, 매듭수, 사슬수, 느낌수, 십자수, 귀갑수, 깃털수, 징금수가 있다. 우리나라 자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자수기법으로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명암을 살려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하는데 이용되는 기법으로 바늘땀을 불규칙적으로 길고 짧게 뜨면서 면을 매우는 자연수와, 밀수를 푼사로 놓고 그 위에 징금수를 놓아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드는 기법인 칠보수, 돛자리의 결 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넓은 면을 채울 때에 주로 사용되는 자리수가 있다.

자수에 사용된 문양은 주로 남성용은 장수, 입신출세, 선비의 기상, 권력, 힘, 군자의 절개들을

상징하는 학, 호랑이, 돌, 해, 사슴, 매화, 소나무, 구름 등의 문양을 수놓았으며 여성용은 다산, 다남 등 생산적 역할에 관련된 소망을 모란, 연꽃, 나비, 꽃, 벌, 국화, 석류 등으로 표현하여 그 시대를 살아간 일반적인 남녀의 기원을 보여준다. 또한 유아용은 장수, 부귀, 건강을 기원하는 모란, 학, 소나무, 연꽃, 복숭아 등을 수놓았다.

이렇듯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한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의 자수문화가 안타깝게도 한동안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규방공예라 불리워지는 침선공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효재' 라는 사람으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 직접 수를 놓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양 자수의 실용적인 면을 보태어 새로운 21세기 자수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의 전통자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본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받는 사람의 복을 기원한 우리네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정성을 바늘과 실에 담아보길 바란다. 행복한 가을이 될 것이다!



반달곰 150마리의 수목원 「베어트리파크」

충남 연기군 전의면을 가면 10만여평 대지에 1000여종, 40만 여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베어트리 파크(Beartree Park)가 있다.

이곳은 국내에서는 보기드문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이곳의 설립자인 LG그룹 고문을 지낸 이재연씨 부부는 지난 45년 동안 가꾸온 수목원을 개방하면서 “주말마다 찾아와 나무가 아프다면 약 주고, 목 마르다면 물을 주다 보니 아름다운 자연이 됐다”고 했다. 부부가 즐기기에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베어트리 파크는 수목원이



연기문화원장
임영이

라지만 놀이공원 같은 인상을 준다. 입구인 '게스트하우스' 건물

부터가 놀이공원에서 언뜻 본 듯한 디자인이다. 놀이공원 수준은 아니지만 베어트리파크에는 다른 수목원과 달리 나무와 풀과 꽃 외에 동물이 많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오히려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게스트하우스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오색연못'과 만난다. 연못은 비단잉어 500여 마리로 '물 반 고기 반'. 비단잉어는 빨강·노랑·검정 그리고 이 모든 색이 섞여 어떤 빛깔과 무늬를

띠느냐로 미추(美醜)를 가린다. 비단잉어는 금붕어나 열대어와 달리 옆이 아니라 위에서 감상한다. 그래서 연못을 가능한 한 낮게 만들고 그 위로 구름다리를 봉긋하게 만들었다. 오색연못을 지나 안내센터와 식당 등이 있는 웰컴 하우스 뒤로 '베어트리 정원'이 나온다. 주황·빨강·노랑·진분홍 꽃들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심겨 있다. 정원을 가로질러 언덕길을 오르면 반달곰과 공작새, 꽃닭, 원앙새 등이 있는 애완동물원이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 반달가슴곰 '용이' '강이' '산이'가 엄청나게

인기다. 이곳을 찾은 유치원생 및 어린 초등학생들은 아기 곰들을 보면 까무러칠 듯 좋아하며 쓰다듬는다. 애완동물원 뒤로 어른 반

달가슴곰들이 모여 사는 '반달곰 동산'이 있다. 이곳에 사는 반달곰이

무려 150여 마리나 된다. 이 회장이 지인에게 선물 받은 반달곰이 번식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가 불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위협적

이지도 않다. 이 곰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음식'이란 등식이 들어 있는 모양

이다. 사람이 난간에 다가가면 아래쪽으로 몰려온다. 베어트리파크 관계



자는 "사육사가 다가올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사람을 보면 식사한다는 반복학습이 된 것 같다"고 했다. 한 통에 1000원 하는 당근을 던져주면 받아먹지는 못하지만 땅에 떨어지면 얼른 집어 먹는다. 반달곰 동산을 지나자 '야생화동산'이다. 여기서부터 수목원 느낌이 난다. 한국의 산과 들에 서식하는 야생화를 모은 산책로다. 여기를 지나 조금 오르면 '전망대'다. 수목원 가장 높은 지점이다. 탁 트인 전망이 시원하다. 언덕을 내려와 반달곰동산을 오른쪽에 두고 직진하면 '곰조각공원'과 '송파정(松坡亭)'을 지나 1000여평 규모 '열대식물원', 연꽃이 가득한 '수련원', 보랏빛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창포 사이로 산책할 수 있는 '아이리스원' '분재원'을 지나 '만경비원'에 닿는다. 만경비원은 "관람객에게 여기만은 꼭 보시라고 권한다면 어디냐"고 물으면, 이재연 회장은 주저 없이 꼽는 곳이 만경비원이다. 입장료와 별도로 관람료 2000원을 따로 내야 하는 게 걸리지만, 자동문이 열리자 초현실적 풍경 한가운데 선 내가 보인다. 핑크·보라·노랑·하얀색 화려한 양란 수백개가 문을 들어선 관람객을 360도 둘러싼다. 자동문이 양옆 반원형 벽을 따라 층층으로 놓인 양란 화분 수백개가 맞은편 거울에 반사돼 연출하는 광경이다. 왼쪽 출입구를 따라 올라가면서 로즈마리·세이지·라벤더 따위의 허브를 손으로 만지며 냄새를 맡다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다. 분재와 이끼와 돌과 나무화석을 이용해 한국의 부드러운면서도 아늑한 산천을 미니어처로 재현했다. 마치 소인국에 들어선 기분으로 한국의 자연을 내려다보는 기분이다.

만경비원을 나와 '향나무동산'을 걸어 내려왔다. 잘 자라지 않는 향나무 수십 그루가 삼나무처럼 치솟아 있다.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식물 남다른 볼거리를 갖추어 사계절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곳은 가족단위로 놀러 오는 장소로 참 좋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맨발로 등산로가 있는 「오봉산」 그리고, 도깨비가 살고 있는 천년의 고찰 「비암사」를 찾아서...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에는 등산화도 운동화도 필요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는 맨발로 등산로가 있는 오봉산(262m)이 있다. 이산은 등산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왕복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산이기 때문에 가족 산책로로 인기가 많아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고 있다. 오봉산은 입구에서부터 맨발로 남장군·여장군이 서서 “웃으며 즐겁게 산책하세요” 하고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하게 된다. 등산로에는 소나무와 활참목이 조화롭게 생육하고 있어 사계절 내내 솔잎향기가 그윽하다. 또한 올라가는 곳곳에 맨발등산로가 개설되어 맨발로 걸으면 지압효과가 뛰어나 노화방지,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올라가는 주변에는 평상, 원형탁자, 팔각정 등 편의시설과 연기, 평행봉, 꺼꾸리 등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산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



봉산맨발등산로



도깨비도로



비암사

비암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과 어우러진 비암사의 모습을 보니 세상의 속세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기군을 찾아오면 꼭 들리라고 하고 싶다.

체육시설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며 올라가다 보면 승모단 입구에 수질이 가장 좋은 약수터가 있어 등산객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약수 한모금을 마시고 조금 더 오르면 정상이 나오는데 정상에서 왼쪽을 보면 조치원읍이 한눈에 들어오고 오른쪽을 보면 고복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다. 내려와서 보는 봉산향나무(천연기념물 321호)의 자태는 오랜 세월을 버텨 온 선비의 절개와도 같은 모습으로 “안녕히 가세요”한다.

오봉산을 뒤로 하고 차를 타고 15분을 더 가면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에 도깨비가 살고 있는 천년의 고찰인 비암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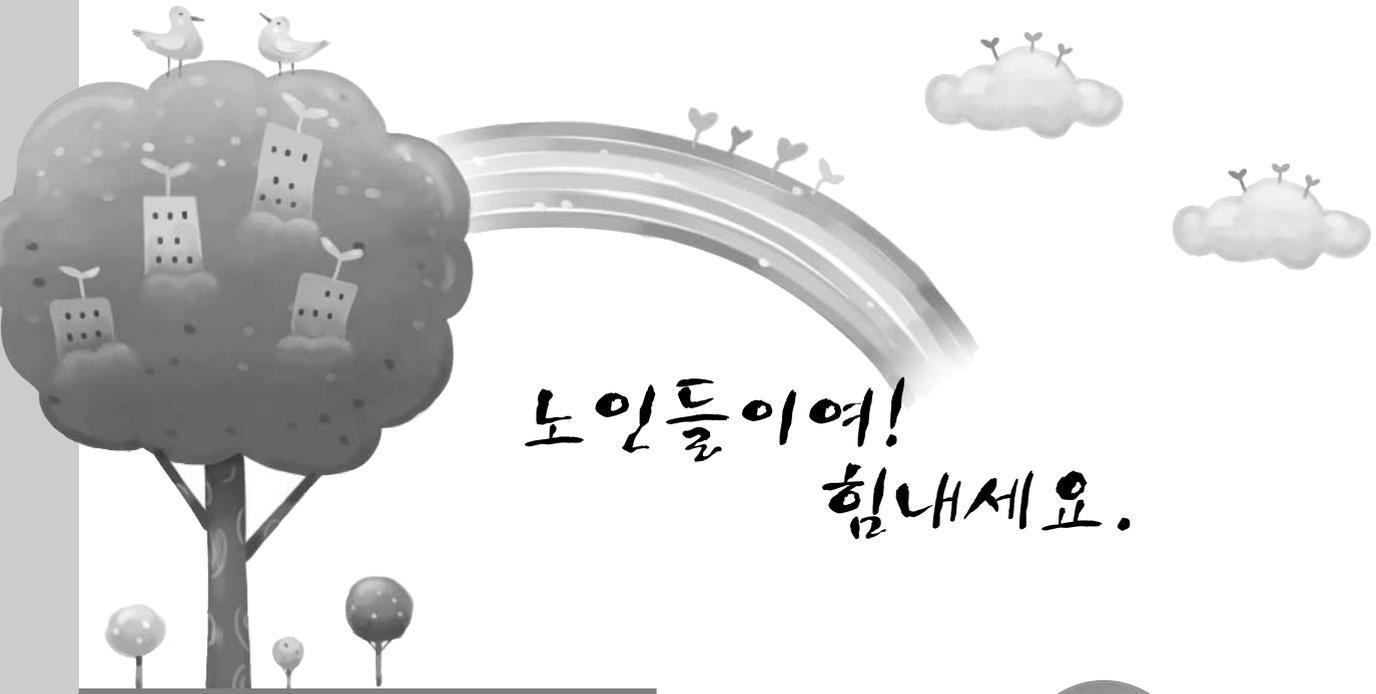
입구에서부터 차의 시동을 끄고 가만히 두면 차가 오르막길로 올라간다. 제주도어나 가서 경험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도깨비가 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아마도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간속세에서 찌든 때를 깨끗이 씻고 오라는 것 같다며 신기해 하는 곳이다.

도깨비 도로를 뒤로 하고 비암사 입구에 도착하면 800년이나 되는 느티나무가 “어서오세요” 하듯이 깎듯이 길을 내어 준다.

비암사 마당에 들어서면 삼층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의 탑으로 도지정 문화재 제11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을 보니 옛 사람부터 현재의 사람까지 많은 소원을 들어준 것 같은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다.

탑 뒤로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79호로 되어 있는 극락보전이 있고 잔디로 되어 있는 마당을 돌아 대웅전을 지나니 비암사 옆에는 잘 정비된 다비 숲 공원이 있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니





노인들이여! 힘내세요.

지난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한 분의 이야기이다.

“어이, 장선생 어디 직장에 다니나봐.”

“예, 아이들 한자 지도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나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했으니 참 좋은 일이군, 잘하는 일이야....”

동네 이웃 어르신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나 또한 자긍심 같은 것을 느꼈다. 이야기 가운데 일거리가 있어 활력이 넘치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위해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치매 예방도 되고 또 용돈도 생긴다는 자랑이었다. 그래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해 봐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문화원 홈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문화강사 참여 희망자 신청이란 공지사항이 떴다. 또 삼락회 사무실로 공문도 왔다.

사진도 준비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했더니 다행히 선발되어 어느 날 문화원으로 나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떴다. 그리하여 ‘노인일자리’라는 모집취지에 좀 야릇한 느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도 안하고 살아왔는데 말이다.

오늘날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9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526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6%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2018년에는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되는 고령화 속도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더욱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은



문 희 태

밖으로 내 몰리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 하루 모이는 노인들만도 매일 3,4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 노인 문제는 질병, 고독, 빈곤의 삼고(三苦)다.

우리나라는 근대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년에는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보도를 본 바 있다.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대열에 와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녹슬어가는 뇌에 윤회제가 되고 건강증진에 도움 되고 용돈도 생긴다는 일석삼조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모집분야도 다양했지만 난 한자지도를 희망했고 서림복지원에 배정을 받았다.

정신지체가 아닌 신체지체 장애 원생 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은 때문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고 좋아하고 따른다는 점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수가 없다. 설 시간 없이 두 시간이 넘는 110분 동안 자세의 흐트러짐 없이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배우고 싶다는 욕구로 열심히 하고 불편한 손으로 반복해 쓰고 익히는 모습에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 난 그들의 뜨거운 눈빛과 서로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한자 육서(六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기초 한자를 제법 알게 되었다. 8급, 7급 한자 급수 시험문제도 제법 접하게까지 이르렀다. 일자리 사업이 종료될 때 난 배움에 굶주린 저들을 어떻게 멀리한단, 정말 걱정이다.

사실 난 처음엔 내 일거리, 건강, 용돈 그런 측면에서 접했지만 지금은 따뜻한 정으로 사제의 만남 같은 그리고 연민같은 사랑을 저들에게서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일자리 목적으로 바뀌었다.

노인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자활 또는 경제관념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정 분야 전문지식 소유자나 경험많은 고급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다. 오늘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 인식은 미흡하다고 본다.

노인 문제 담당자나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인들이여! 힘내세요. 당신들은 결코 힘없는 늙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가 되세요.

그동안 보조자료 제작이나 그 외 많은 협조를 주신 임선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

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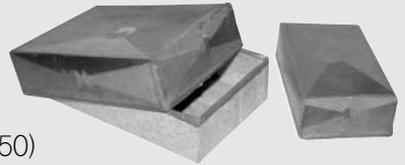
소

직

■ 한지공예 수강생 모집

한지공예품을 만들면서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지공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10. 4~10. 8
- 수업기간 : 10. 11~11. 19(주2회, 총 12회)
- 수업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12시
- 수 강 료 : 30,000원
- 재 료 비 : 80,000원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



■ 가족문화유적답사

가족단위의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고 서산의 문화를 몸소 체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일 시 : 10. 31(일)
- 장 소 : 부석사, 간월암, 천수만, 유방택 천문과학관
- 대 상 : 서산시민 (가족단위 참여가능)
- 정 원 : 40명
- 접수일시 : 10. 18(월) ~ 10. 22(금)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

2010 지역명예교사사업 작가 유용주와 떠나는 역사와 문학이 함께 하는 기행

청소년의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의 문학인을 돌아볼 수 있는 문학 기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명예교사 : 유용주(문학가)
- 일 시 : 1차 - 10. 23(토)~24(일) 2차 - 11. 27(토)~28(일)
- 장 소 : 서산, 홍성, 보령, 장수
- 대 상 : 1차 - 중학생 30명, 2차 - 고등학생 30명
- 접 수 일 : 10월 6일부터 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또는 학교 공문 접수
- 참 가 비 : 1인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관련 신분증 또는 서류 제출)
- 문 의 :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





시 | 정 | 소 | 식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보호 현장서비스"

2010 하반기 PC순회점검반 활동 안내

◎ PC점검 내용

- CPU 청소, 구리스 주입 등 PC 내부 청소
- 악성코드, 키워드광고, 가짜 백신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 기타 정보화 관련 상담 및 지원

◎ 지역별 순회일정

- 동 지역 : 9. 27 ~ 12. 30 / 기간내 수시
- 읍면 지역별 일정



◎ 점검방법

점검방법	대 상 자	점 검 방 법
마을회관	농어민 등	마을단위로 PC집합 후 현장점검 실시
택 내	거동불편 고령자 또는 지체 장애인 등	택내 개별 방문점검 실시

◎ 방문요청

- 대 상 자 :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거동불편 고령자, 복지시설 등
- 신청방법
 - 동 지역 : 전화 신청 660-3004 / 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
 - 읍면지역 : 마을단위로 신청 / 해당 읍면 주민센터 문의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의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김진오 (서산시 운산면) 3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장석재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 임석노 (서산시 읍내동) 10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 구자상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권용중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유희채 (서산시 운산면) 50,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윤희경 (서산시) 20,000원 |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김묘규 (서산시 석림동) 200,000원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30,000원 |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